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도시 장소 정체성의 상실

이형관*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리말

2000년대 후반 이후 도시의 '장소'에 주목하는 다큐멘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과 사회적 장애를 방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에는 장소를 단지 배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담론 내에서 장소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나 회적 가치가 부족했고, 대부분 장소를 에워싼 사회·정치적 문제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도시의 장소는 장면의 분위기를 위한 요소로 적용될 뿐이었다.

도시의 '장소' 자체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2008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개발 사업에 따른 수많은 장소의 파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다. 각종 매체는 정치적 논쟁을 이끌기 위한 시도로 장소 파괴를 다루었고, 다큐멘터리도 그 중 하나였다. 초기에는 재개발에 의한 장소 파괴나 도시민의 정서 상실이라는 제한적 소재만을 다루었지만, 이후 직접적인 감응의 매개로 발전했다.

본 연구는 '장소 정체성 상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고찰한다. '장소', '장소 정체성' 개념이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와 교차하여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탐구한다. 기존의 도면이나 보고서와 같은 평면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간적 결과물을 참고하는 작업은 도시 경관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동시에 일상적 장소의 이면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II. 장소와 장소 정체성

마틴 하이데거는 장소를 인간이 외부와 맺는 유대이며, 자유와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Heidegger, 1958: 19). 프레드 루커만은 장소를 6가지 요소(위치, 통합, 순환, 지역, 역사, 인간 행위)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았다(Lukermann, 1964: 167-172). 조셉 메이는 장소를 특별하고 구체적인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May, 1970: 214), 이-푸 투안은 장소는 안전이자, 정지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했다(Tuan, 1977: 14-20). 에드워드 렐프는 모든 형식적 지리학 지식의 전제가 되는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소 개념이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ph, 1976: 197). 이상에서 살펴본 장소의 의미를 종합하면, 장소는 '특정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

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으로 삶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장소에서 파생되어 나온 용어가 장소 정체성이다. 케빈 린치는 장소 정체성이 장소를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고(Lynch, 1960: 6), 이안 나이른은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 있는 사람 수만큼 많으며, 고유한 주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Nairn, 1965: 78). 렐프는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장소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장소 정체성'의 개념을 탐구했다. 그는 장소 정체성을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본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며, 물리적 환경·활동·의미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진다고 주장한다(Relph, 1976: 1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하는지이다. 물리적 환경과 활동이 결합할 경우, 기능적 영역 속에서 인간에게 적절한 입지를 부여하고, 물리적 환경과 의미가 결합할 경우, 도시 경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경험 속에서 결합하며, 활동과 의미는 사회적 행위와 공유된 역사 속에서 결합한다고 말한다. 즉, 물리적 환경·활동·의미는 장소 정체성의 재료이며, 그들의 변증법적 작용은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렐프에 따르면 장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이 사회적 상호 작용과 개인 행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태도·유행·신념들이 변화하여 정체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장소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활동·의미의 무한한 소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외적·내적 이유로 인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변화할 경우 명확한 형태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상실이 발생한다.

III. 다큐멘터리의 매체 효과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을 통해 일상 세계를 재현한다. 세계 최초의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인 뤼미에르 형제의 <시오라 역에 도착하는 기차> 탄생 이후, 다큐멘터리는 시대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삶의 거울과 같은 존재로 거듭났고, 공인된 비현실의 영역으로서 지지받았다. 영상과 사운드는 현실을 밀집시키는 동시에 폭넓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현재성'이라는 강력한 힘을 통해 사회를 발현해내는 능동적 체제로 작용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주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체를 촬영한 사진의 연속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장소의 변화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관객은 주체에 따라 시선을 옮기고, 화면과 자신의 움직임을 동일시한다. 고정된 자리에서 감상하지만, 미적 경험의 주체로서는 그렇지 않다. 관객의 눈은 시점이 달라지는 화면과 끊임없이 일치되기 때문에, 미적인 의미에서는 무한으로 수렴하는 경험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장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연출할 수 있고,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경험을 다른 매체보다 풍성하게 재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는 '장소의 역동화'와 '시간의 장소화'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가능성을 지닌다.

IV.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장소 정체성의 상실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안건형 감독의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와 오민욱 감독의 <범전>을 분석한다. 두 작품 모두 영화·예술 분야에서 대안적·실험적·창의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은 작품으로, 위에서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 구성 요소와 연관지어 해석할 것이다. 특히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가 다큐멘터리 표현 기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홍제천', '세검정', '백석동천'의 잘못된 장소 복원을 말한다. 세 장소는 재난, 도로 건설, 복원 사업 등에 의해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맞는다. 이로 인해 사람의 '활동'이 변하고, 장소의 '의미'도 변한다.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래 장소가 가진 정체성과 거리가 먼 장소가 출현하고, 영화는 이를 크게 세 가지 기법을 통해 강조한다. 첫 번째는 촬영 기법으로, 과거와 현재의 '물리적 환경'을 대하는 방식을 차별화한다. 과거의 장소는 그림과 사진을 통해 전달하지만, 현재의 장소는 딥포커스(deep-focus)로 촬영하여 정적이면서 진진 없는 풍경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사운드이다. 사운드를 배제하여 장소의 외적·내적 요소에 시선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장소가 가진 본질로 유도한다. 세 번째는 텍스트로, 텍스트+영상·그림·사진의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열된다. 이미지화된 텍스트는 답답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에서 장소를 관찰한다.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의 구성 요소 중 '물리적 환경'과 '의미'의 결합이 강하다. '물리적 환경'만을 복원해서는 장소의 기억을 재구성해낼 수 없으며, 장소의 '의미'를 생산적으로 읽어내는 장소 중심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독특한 구성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범전>은 부산 범전동에 관한 기록이다. 범전동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캠프 하야리아가 들어오면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맞는다. 이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활동'하지만 2006년 캠프 하야리아 해체로 다시 '물리적 환경'이 변하고, 현재는 부산시민공원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다. 영화는 세 가지 기법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활동'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미장센으로, 장소를 직접 경험한 인물의 '활동'을 개발의 풍경에 녹여낸다. 또한 '빨래'와 '공사 현장', '철거된 집'과 '남아있는 집'과 같이 프레임 안에서의 대비를 이용하여 생과 사의 '의미'를 표현한다. 두 번째는 색채로, 범전동에 산재해 있는 붉은색을 강조하여 사라져 가는 장소에 역동적인 존재성을 부여한다. 세 번째는 사운드로, 앞의 영화와는 달리 장소에 존재하는 미세한 소리까지도 포착하여 장소 구성 요소가 '활동'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준다. <범전>은 사라진 또는 사라질 장소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주시하고, 장소 정체성 상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물리적 환경'과 '활동'의 결합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물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활동'이 공존하여 장소 정체성이 유지되었지만, '활동'했던 사람들을 배제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두 요소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적절한 입지'를 파괴시킨다는 점을 영화 기법을 활용해 나타낸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장소·장소 정체성의 의미와 다큐멘터리의 매체 효과를 검토하고,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통해 실제 다큐멘터리 사례를 해석해 보았다. 효과적인 영화 기법을 통해 장소 정체성의 상실을 극대화시킨 작품을 사례로 선정했다. '장소'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지향점은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장소 형성 과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를 통해 도시 장소를 더 선명하게 관찰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비추는 장소를 통해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더 나은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장소' 다큐멘터리의 출현은 지속적인 이론적 작업과 연구 과제를 제공해준다.

참고문헌

1. 이도훈(2013) 한국 독립 영화의 '공간적 선회': 2008년 이후 한국 독립 영화의 공간성 연구. *문학과 영상* 14(4): 1059-1064.
2. 이도훈(2014)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가 동시대의 공간 재생산을 기록하는 방식. *영상예술연구* 24: 43-49.
3. 하선규(2012) 현대 영상매체와 공간적 경험에 관한 매체미학적 연구: 사진, 영화, 텔레비전의 매체효과와 이미지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미학회지* 71: 195-204.
4. Heidegger, M.(1958)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5. Lukermann, F.(1964)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67-172.
6. Lynch, K.(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7. May, J. A.(1970) *Kant's Concept of Geography*.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ublication No. 4.
8. Nairn, I.(1965)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andom House.
9.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택현 외 옮김(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10. Tuan, Y.-F.(1977) *Space and Place*. 구동희 외 옮김(2007). *공간과 장소*. 서울: 도서출판 대운.